



## 지구촌 양계뉴스

### 미국

#### 올해 닭고기 생산량 전년 동기대비 증가

지난 1월 20일 발표된 미국 농무부(USDA)의 축산물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10년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09년 4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한 88억 파운드였다. 2009년 4분기 들어 입란실적과 병아리 생산은 전년과 격차를 많이 좁혔다. 2010년 병아리 수수는 전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증가하고, 평균체중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10년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1% 상승한 359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2009년 11월 육계 생산량은 28억 파운드로 전년보다 4% 증가했다. 이는 2008년 보다 도축일수가 하루 많았기 때문이다. 2009년 11월 도계수수가 전년보다 2.2% 증가함에 따라 생체중 또한 전년보다 1% 증가한 5.67파운드(2.6kg)였다.

2009년 11월 닭고기 재고량은 10월말보다 2백만9천 파운드 증가한 6억4천 파운드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전년 동기대비 11%

감소한 수준이다. 2009년 닭고기 생산량 감소로 인해 2009년 11월까지의 재고량은 전년보다 낮았다. 미절단 총 재고량은 1천9백만 파운드로 전년 동기대비 24% 감소했다. 2009년 말 닭고기 재고량은 전년보다 14% 감소한 6억4천만 파운드로 전망된다.

2009년 북동부시장의 빼어난 가슴살 가격은 2008년 보다 1% 상승한 파운드당 1.30\$였다. 가슴살의 경우 2009년 5월을(1.48\$) 정점으로 10월에는 1.13\$까지 하락했다. 1/4 다리살 가격은 2008년보다 14% 하락한 파운드당 39센트였다. 1/4 다리살 가격의 패턴도 가슴살 가격과 비슷하여 6월을 정점으로 10월에는 하락했다.

날개는 푸드 체인의 성장으로 수요가 증가해 2009년에는 강세를 보였다. 2009년 날개 가격은 2008년 보다 39% 상승한 파운드당 1.47\$였다. 과거 경험상 날개 가격은 슈퍼볼 시즌이 마감하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09년 12월은 2008년보다 38% 하락한 파운드당 1.65\$였다.

러시아의 쿼터감소, 불확실한 교역 여건, 대다수 국가들의 경기 침체 등으로 2010년 닭고기 수출량은 60억 파운드로 2009년 보다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11월 닭고기

수출량은 2008년 보다 7% 감소한 5억3천만 파운드였다. 러시아로의 닭고기 수출 감소(24%)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그루지아 등으로의 수출도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수출량 감소는 소규모 교역국가인 쿠바, 과테말라, 대만 등과의 수출 증가로 일부 상쇄될 수 있었다. 2009년 4분기 닭고기 수출량은 2008년 동기보다 4% 감소한 16억 8천만 파운드로 예상된다.

- USDA

## 아르헨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닭고기 예찬론 펼쳐

아르헨티나의 여성 대통령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가 닭고기 예찬론을 들고 나섰다. 브라질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가 지난 1월 29일 보도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전날 양계업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닭고기가 성적 기능을 높여 주는 것은 아니지만 살을 빼는 데는 도움이 된다”며 “특히 닭 가슴살이 좋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정부 지원을 통해 양계장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 같이 말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나는 닭고기를 매우 좋아한다”면서 닭을 독수리에 비유해 “혹시 아느냐? 닭고기를 많이 먹으면 날 수 있을

지...”라며 다소 엉뚱한 발언도 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닭고기 소비를 늘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쇠고기를 가장 선호하는 나라로, 정부는 최근 수년간 값이 부쩍 오른 쇠고기의 대안으로 돼지고기와 닭고기 소비 진작을 추진하고 있다.

- 상파울루-연합뉴스

## 베트남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우려대로 지난 설 연휴에 베트남에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현지 일간신문인 ‘년전’은 농업농촌개발부 소식통을 인용, 지난 2월 12일부터 시작된 설 연휴에 북부 남딩성과 남부 속짱성에서 AI가 발생했다고 지난 2월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속짱성 타이 토이 투언현의 경우 이번 설 연휴에 모두 500여마리의 오리가 죽은 이후 다시 630여마리가 AI 양성반응을 보여 나머지 오리도 모두 살처분됐다고 밝혔다. 또 남딩성 응히안현에서는 270여마리의 오리가 AI에 양성반응을 보여 모두 살처분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 >

- 하노이-연합뉴스